

<Brief Report>

한국판 적대적 자동적 사고 척도의 타당화 연구

서 수 균[†]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적대적 자동적 사고 척도(Hostile Automatic Thought Scale: HAT)는 타인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척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척도의 한국판을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서 대학생 419명에게 HAT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216명에게는 상관분석을 위해서 공격성질문지,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 일차적/이차적 분노사고 척도를 함께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HAT의 3요인(신체적 공격성, 타인비하, 보복) 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HAT는 높은 수준의 내적합치도를 보였으며, 분노표출/억제, 신체적/언어적 공격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에 분노통제와는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보여 양호한 수렴/변별 타당도를 보였다. HAT가 타인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요어 : 적대적 자동적 사고 척도, 신체적 공격성, 타인비하, 보복, 확인적 요인분석, 수렴/변별 타당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서수균 /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4-10
FAX : 02-2128-3111 / E-mail : sgseo12@hanmail.net

적대감은 흔히 특성분노나 공격성의 한 차원으로 얘기되고 있다. Spielberger, Johnson, Russell, Crane, Jacobs와 Worden(1985)은 분노감(anger), 적대감(hostility), 공격행동(aggression)을 'AHA' 증후군이라고 일컬었다. Martin, Watson과 Wan(2000)은 분노감, 공격행동, 적대감이 각각 특성분노의 정서적(affect), 행동적(behavior), 인지적(cognition) 차원이라고 제안하며 이를 'ABC' 모델이라고 일컬었다. Buss와 Perry(1992)는 이 세 가지 차원이 공격성의 성격적 특질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분노감, 적대감, 공격행동이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분노감은 공격을 위한 생리적 각성과 준비성을 수반하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로 정의된다(Buss & Perry, 1992; Novaco, 1994; Berkowitz, 1993). 적대감은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방식으로 타인이나 세상을 보는 태도로, 타인이나 대상을 해치거나 파괴하려는 공격행동을 동기화시킨다(Buss & Perry, 1992; Spielberger, Jacobs, Russell, Crane, 1983). 끝으로 공격행동은 타인이나 다른 대상을 향한 파괴적이고 처벌적인 행동이다(Spielberger et al., 1983). ABC 모델을 제안한 Martin 등(2000)의 주장과 적대감에 대한 정의를 고려할 때, 적대감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차원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기존의 적대감을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의 대부분은 분노감, 적대감, 공격행동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아, 연구결과를 이해하는데 혼란이 있다(김교현, 2000; 김교현, 전경구, 1997; Martin et al., 2000; Spielberger et al., 1985).

적대감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형 검사로 Cook-Medley Hostility Scale(Ho Scale; Cook & Medley, 1954)와 Buss-Durkee Hostility Inventory

(BDHI; Buss, 1961; Buss & Durkee, 1957)가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다. Ho 척도는 다면적 인성검사(MMPI; Hathway & McKinley, 1967)에서 50문항을 발췌해서 만들어졌다. 이 척도의 제한점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요인구조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Contrada & Jussim, 1992; Smith, 1992). 두 번째는 이 척도가 관련 척도와 상관을 분석했을 때, 적대감의 인지적 측정치 보다 부정적인 정서성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점이다(Barefoot, Dodge, Peterson, Dahlstrom, & Williams, 1989; Shekelle, Vernon, & Ostfeld, 1991). BDHI는 진위형의 75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로, 요인구조는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Bushmen, Cooper와 Lemke(1991)와 Sarason(1961)은 분노경험과 분노표현이라는 두 요인을 보고했으며, Russel(1981)은 부정주의(negativism), 일반적 적대감, 분노표현이라는 세 요인을 보고하였다. Ho척도와 BDHI 모두 인지적 차원에 초점을 둔 적대감을 평가하기 보다는 분노와 공격성 관련 반응이나 정서경험, 태도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Buss와 Perry(1992)는 BDHI의 몇 가지 제한점을 보완해서 Aggression Questionnaire(AQ)를 개발하였으며, AQ는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이라는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대적 자동적 사고 척도(Hostile Automatic Thought Scale: HAT; Snyder, Crowson, Houston, Kurylo, Poirier, 1997)는 Ho 척도나 BDHI와는 달리 적대감의 인지적 차원에 초점을 둔 척도로 적대적 사고를 측정하고 있다. Snyder 등(1997)은 적대감을 느꼈던 상황을 피검자에게 생생하게 회상하게 하고 그 상황에서 떠올랐던 생각을 적어보게 했다. 이렇게 생성된 생각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HAT를 개발하였

다. 각 문항은 Likert 형의 5점 척도(1: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2: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3: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4: 자주 이런 생각을 한다, 5: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상에 평정되었다. Snyder 등(1997)의 연구에 따르면, HAT는 신체적 공격성(11문항), 타인비하(10문항), 보복(9문항)이라는 3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내적합치도는 전체 척도가 .94, 신체적 공격성이 .92, 타인비하가 .88, 보복이 .91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HAT의 한국판을 개발하는 것이다. 영어권에서 장기간 거주한 사람과 논의를 거쳐 HAT를 번안하였다. 먼저 HAT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신뢰도와 수렴/변별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타당도 분석을 위해서, 공격성 질문지(AQ-K; 서수균, 권석만, 2002),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K;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er, 1997), 일차적/이차적 분노사고 척도(서수균, 권석만, 2005)와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HAT는 분노유발 상황에서 흔히 보이는 사고 중에서도 특히 적대적인 자동적 사고에 제한해서 측정하고 있어서 이차적 분노사고 척도와 구별된다. 이차적 분노사고 척도는 타인 비난/보복 같은 적대적인 내용의 사고 외에도 무력감 사고와 분노통제/건설적대처 사고도 포함되어 있다. AQ-K의 적대감 하위척도는 인지적 차원의 적대감을 측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대적인 자동적 사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HAT가 적대감을 직접 평가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적대감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만약 일군의 학자들(Buss & Perry, 1992; Spielberger et al., 1983)처럼 적대감을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방식으로 타인이나 세상을 보는 태도로 정의한

다면, HAT가 타인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방 법

참여자 및 절차

대학생 419명(남:159명, 여:260명, 평균연령: 23세)을 대상으로 HAT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216명(남:79명, 여:137명, 평균연령: 23세)에게는 공격성 질문지,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 일차적/이차적 분노사고 척도를 실시하여 HAT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측정도구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AQ-K)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것으로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하였다.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 등으로 구성된 4개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형의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다, 3: 웬 만큼 그렇다, 4: 꽤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내적합치도는 다음과 같았다: 신체적 공격행동 .74, 언어적 공격행동 .73, 분노감 .67, 적대감 .76 (서수균, 권석만, 2002). 동일한 연구에서 5주 간격으로 얻어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다음과 같았다: 신체적 공격행동 .71, 언어적 공격행동 .83, 분노감 .60, 적대감 .75.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의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를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분노와 분노억제(Anger-In), 분노표출(Anger-Out), 분노통제(Anger-Control)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형의 4점 척도(1: 거의 전혀 아니다, 2: 가끔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거의 언제나 그렇다)상에서 평정되었다. 내적합치도는 특성분노는 .82였으며(전경구 등, 1997),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는 각각 .73, .78, .79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특성분노가 .81이었으며,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는 각각 .71, .67, .82였다(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1998).

일차적 분노사고 척도(Primary Anger Thought Scale)

서수균과 권석만(2005)이 분노유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차적인 분노사고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이다. 일차적 분노사고는 분노유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주 내용으로 하며 이차적 분노사고 유발에 기여한다.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과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이라는 2 요인 구조를 보였다. 분노유발 상황에서 경험하는 생각이나 느낌이 문항의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를 Likert 형의 5점 척도(1: 전혀 일치하지 않음, 2: 약간 일치함, 3: 어느 정도 일치함, 4: 상당히 일치함, 5: 거의 정확히 일치함)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일차적 분노사고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9였다(서수균, 권석만, 2005).

이차적 분노사고 척도(Secondary Anger Thought Scale)

서수균과 권석만(2005)이 분노유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차적인 분노사고를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한 척도이다. 이차적 분노사고는 일차적 분노사고에 이어서 일어나는 생각들로, 흔히 대처 양상을 반영하는 충동이나 행동,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 최근 몇 주 동안 화가 났던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는지를 Likert 형의 5점 척도(1: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2: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3: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4: 자주 이런 생각을 한다, 5: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타인비난/보복, 무력감, 분노통제/건설적 대처라는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각각 .96, .78, .75였다(서수균, 권석만, 2005).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AMOS 4.0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HAT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Snyder 등(1997)의 연구에서 확인된 3요인(신체적 공격성, 타인비하, 보복) 모델이 여기서도 지지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chi^2=1293.59$ ($df=402$, $N=419$)($p<.001$), NFI=.914, RFI=.901, IFI=.939, TLI=.929, CFI=.939, RMSEA=.073. χ^2 결과는 모델을 지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χ^2 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모델을 검증하기 때문에 모델의 적합성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표 1. HAT척도의 요인별 문항과 표준화된 회귀계수 추정치

요인	문항	표준화된 회귀계수 추정치
신체적 공격성	1. 나는 이 사람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	.56
	4. 나는 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	.51
	7. 나는 이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56
	10. 처벌만 피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	.62
	13. 이 인간을 실컷 두들겨 패주고 싶다.	.81
	16. 이빨이 부러져 나가도록 때려주고 싶다.	.78
	19. 그 사람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온갖 몹쓸 일들을 떠올린다.	.75
	22. 나는 이 사람에게 귀싸대기를 울리고 싶다.	.80
	25. 나는 이 사람에게 주먹을 한방 먹이고 싶다.	.77
	26. 나는 지금 당장 똥가를 깨부수고 싶다.	.47
타인비난	29. 내 일을 방해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혼나도 싸다.	.55
	2. 바보 같은 놈!	.60
	5. 이 사람, 몹쓸 인간이구만!	.69
	8. 나는 이 멍청한 사람을 경멸한다.	.67
	11. 정말 머저리 같은 인간이 구만!	.70
	14. 이 사람 정말 짜증난다.	.77
	17. 도대체 이 인간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70
	20. 이 사람이 무례하다고 생각된다.	.70
	23. 이 인간이 제발 입 좀 닥쳤으면 좋겠다.	.81
	27. 입 닥치고 꺼져버렸으면 좋겠다.	.77
보복	30. 이 사람이 날 화나게 만든다.	.68
	3. 나는 이 사람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겠다.	.46
	6. 나는 이 사람에게 앙갚음 해주고 싶다.	.80
	9. 이 사람이 날 괴롭혔듯이, 나도 그를 괴롭히고 싶을 뿐이다.	.78
	12. 나는 복수하고 싶다.	.81
	15. 이 사람이 내게 한 것처럼 나도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다.	.84
	18. 나는 이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줄 거다.	.73
	21. 나는 이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다.	.77
	24. 누가 이 사람처럼 날 공격하면, 나 역시 되받아 공격할 것이다.	.72
	28. 이 사람은 쓴맛을 좀 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67

있으며, 다른 적합도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순목, 1990). NFI, RFI, IFI, TLI, CFI는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면 잘 부합하는 모델로 해석하고,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모델이고 .08 이하이면 적절한 (reasonable) 모델로 해석한다(이순목, 1990; 홍세희, 2000). 분석 결과는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HAT척도의 3요인 모델이 한국판 척도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시사된다. 각 요인별로 해당되는 문항과 각 문항별 표준화 된 회귀계수 추정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내적 신뢰도와 하위척도 간 상관

HAT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적합치도를 분석하였다. 30문항으로 구성된 전체 척도의 Cronbach α 값은 .96이었다. 하위척도별 α 값은 신체적 공격성(11문항)이 .89, 타인비하(10문항)가 .91, 보복(9문항)이 .91로 높은 수준의 내적합치도를 일관되게 보였다. 하위척도 간의 상관은 신체적 공격성과 타인비하가 .67 ($p < .001$), 신체적 공격성과 보복은 .78($p < .001$), 타인비하와 보복은 .78($p < .00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2에는 적대적 자동적 사고의 하위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 점수를 성별에 따라 제시하

였다. 하위척도별로 남녀 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신체적 공격성에서만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

HAT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분노 증상 관련 척도와 HAT의 상관을 분석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HAT는 STAXI-K의 분노통제를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와 중등도 수준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일관되게 보였다.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모두 HAT와 비슷한 수준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적대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반응에 모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HAT가 AQ-K의 신체적/언어적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것으로 보아 적대적 사고가 공격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어서 일차적/이차적 분노사고 척도와 HAT의 상관을 분석하여 표4에 제시하였다. HAT는 모든 분노사고 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내용적으로 가장 유사한 이차적 분노사고의 타인비난/보복과 가장 높은 상관을 일관되게 보였다. HAT는 무력감 하위척도와 중등도 수준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표 2. HAT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척도	전체(n=216)	평균(표준편차)		t
		남자(n=79)	여자(n=137)	
신체적 공격성	16.46(6.22)	17.76(6.18)	15.70(6.13)	2.37*
타인비하	22.07(7.68)	22.06(7.13)	22.11(8.02)	-.04
보복	16.58(6.93)	16.77(6.75)	16.41(7.04)	.37

* $p < .05$ (양방검증)

표 3. HAT척도와 STAXI-K 및 AQ-K의 상관

척도	신체적 공격성	타인비하	보복
STAXI-K			
특성분노	.41***	.37***	.39***
분노표출	.38***	.37***	.37***
분노억제	.29***	.36***	.30***
분노통제	.05	.03	.07
AQ-K			
신체적 공격성	.40***	.32***	.36***
언어적 공격성	.18**	.17***	.30***
분노감	.31***	.28***	.30***
적대감	.37***	.37***	.38***
총점	.47***	.42***	.48***

AQ-K: 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STAXI-K: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 $p < .01$, *** $p < .001$

표 4. HAT척도와 분노사고 척도의 상관

척도	신체적 공격성	타인비하	보복
일차적 분노사고	.19**	.35***	.31***
이차적 분노사고			
타인비난/보복	.64***	.68***	.72***
무력감	.35***	.29***	.29***
분노통제/건설적 대처	.24***	.22**	.23**

** $p < .01$, *** $p < .001$

이는 적대적 사고를 많이 할수록 무력감을 많이 경험하며 문제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차적 분노사고와 HAT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적대적인 사람이

타인의 부당함과 무시에 과민한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논 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HAT의 3요인(신체적 공격성, 타인비하, 보복) 모델은 한국판 HAT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노 증상 척도 및 분노사고 척도와의 상관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일관되게 보였다. 흥미로운 결과는 HAT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표출 뿐만 아니라 분노억제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여, 분노표현과 관련된 내적 갈등이 심한 것으로 시사되었다. 또한 적대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공격행동을 많이 보일 뿐만 아니라 무력감 사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 해결 상황에서 적응적인 대처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시사되었다. 특히 HAT는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가장 유사한 이차적 분노사고의 타인비난/보복 하위척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HAT가 특성분노, 분노표출, 공격행동에 비해 이차적 분노사고의 타인비난/보복 하위척도와 거의 두 배 가까이 더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HAT가 정서적 및 행동적 차원보다는 인지적 차원에서 적대감을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여겨진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판 HAT 척도는 타인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유용한 자기보고형 검사인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HAT는 적대감의 인지적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적대감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Ho 척도나 BDHI를 보완해 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얻은 HAT의 내적합치도는

Snyder 등(1997)의 연구결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HAT와 특성분노의 상관도 다른 연구에서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Deffenbacher, Pettrilli, Lynch, Oetting & Swaim, 2003; Snyder et al., 1997). 본 연구에서 HAT가 이차적 분노사고의 무력감 하위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은 이전 연구에서 HAT가 Beck Depression Inventory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결과와 일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Crowson, Frueh & Snyder, 2001; Snyder et al., 1997).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HAT가 타인에 대한 적대적인 부정적 사고를 측정하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태도와 HAT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적대적인 태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서는 관찰을 통한 제 3자의 평가가 병행되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 본 연구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다른 집단으로까지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대인관계 양상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본 연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HAT와 적대적인 대인관계 형성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제한이 있다. 네 번째, 본 연구에서는 HAT와 분노 외의 다른 정서와의 상관을 분석하지 않아, HAT가 분노나 적대감을 우울이나 불안으로부터 얼마나 변별력 있게 예언해 주는지에 대한 논의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HAT가 이차적 분노사고의 타인비난/보복 하위척도와 특히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분노를 느낄 때와 적대감을 느낄 때 공통적으로 하는 사고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추후 연구에서는 분노유발 상황과 적대감 유

발 상황에서 경험하는 자동적 사고의 차별성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김교헌 (2000). 분노 억제와 고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 181-192.
- 김교헌, 전검구 (1997). 분노, 적개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79-95.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487-501.
- 서수균, 권석만(2005). 분노사고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187-206.
- 이순목 (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 전검구, 한덕웅, 이장호(1998).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 대학생 집단.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18-22.
- 전검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C. 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60-78.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임상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8.
- Barefoot, J. C., Dodge, K. A., Peterson, B. L., Dahlstrom, W. G., & Williams, Jr., R. B. (1989). Cook-Medley Hostility Scale: Item content and ability to predict survival. *Psychosomatic Medicine*, 51, 46-57.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 consequences,*

- and control*. New York: McGraw- Hill, Inc.
- Bushman, B. J., Cooper, H. M., & Lemke, K. M. (1991). Meta-analysis of factor analyses: An illustration of the Buss-Durkee Hostility Inventor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 344-349.
- Buss, A. H. (1961). *The Psychology of Aggression*. New York: Wiley.
- Buss, A. H.,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343-349.
- Buss, A.,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ontrada, R. J., & Jussim, L. (1992). What does the Cook-Medley Hostility Scale measure? In search of an adequate measurement model.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2, 614-627.
- Cook, W. W., & Medley, D. M. (1954). Proposed Hostility and Pharisaic-Virtue scales for the MMPI.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38, 414-418.
- Crowson, J. J., Frueh, C., & Snyder, C. R. (2001). Hostility and hope in combat-relat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look back at combat as compared to toda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 149-165.
- Deffenbacher, J. L., Petrilli, R. T., Lynch, R. S., Oetting, E. R., & Swaim, R. C. (2003). The Driver's Angry Thoughts Questionnaire: A measure of angry cognitions when driving.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7, 383-402.
- Hathaway, S. R., & McKinley, J. C. (1967).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anual for administration and scoring*. New York: Psychological Corporation.
- Martin, R., Watson, D., & Wan, C. K. (2000). A three-factor model of trait anger: Dimensions of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68, 869-987.
- Novaco, R. W. (1994). Anger as a risk factor for violence among the mentally disordered. In J. Monahan & H. J. Steadman (Eds.), *Violence and mental disord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rason, L. G. (1961). Intercorrelations among measures of hostil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7, 192-195.
- Shekelle, R. B., Vernon, S. W., & Ostfeld, A. M. (1991). Personality and coronary heart disease. *Psychosomatic Medicine*, 53, 176-184.
- Smith, T. W. (1992). Hostility and health: Current status of a psychosomatic hypothesis. *Health Psychology*, 11, 139-150.
- Snyder, C. R., Crowson, J. J., Houston, B. K., Kurylo, M., & Poirier, J. (1997). Assessing hostile automatic though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HAT sca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 477-492.
- Spielberger, C. D., Jacobs, G., Russ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In J.N. Butcher & C. D. Spielberg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pp.161-190)*. Hillsdale, NJ: Erlbaum.
- Spielberger, C. D., Johnson, E. H., Russell, S., Crane, R. S., Jacobs, G. A., & Worden, T. J.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A. Chesney &

R.H. Rosenman (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pp. 5-30).

New York: Hemisphere.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pp.

89-108). New York: Springer Verlag.

원고접수일 : 2007. 1. 29.

게재결정일 : 2007. 3. 10.

<Brief Report>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Hostile Automatic Thought Scale

Su-Gyun Seo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Digital Univ.

The Hostile Automatic Thought Scale(HAT) was developed to measure hostile thinking toward other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HAT. The HAT was administered to 419 undergraduate students for factor analysis, and 216 students among these students completed Aggression Questionnair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Primary/Secondary Anger Thought Scale with HAT for correlation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3 factor(Physical aggression, Derogation, Revenge) model of HAT was supported satisfactorily. The HAT correlated moderately with Anger-Out/In and Physical/Verbal Aggression, but did not correlate with Anger-Control. These results suggest satisfactory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HAT Scale. The HAT seems to be a useful scale that measures hostile attitude toward others.

Keywords : Hostile Automatic Thought Scal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hysical aggression, derogation, revenge, convergent/discriminant validity

별첨: 적대적 자동적 사고 척도(HAT)

다음은 적대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최근 몇 주 동안** 얼마나 자주 이러한 생각들이 떠올랐는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장을 읽고 아래와 같이 그 빈도에 따라 적당한 숫자에 'O'표를 해주십시오.

- 1: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2: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3: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4: 자주 이런 생각을 한다. 5: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

	문 항	전혀	가끔	종종	자주	항상
1	나는 이 사람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	1	2	3	4	5
2	바보 같은 놈!	1	2	3	4	5
3	나는 이 사람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겠다.	1	2	3	4	5
4	나는 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	1	2	3	4	5
5	이 사람, 몹쓸 인간이구만.	1	2	3	4	5
6	나는 이 사람에게 앙갚음 해주고 싶다.	1	2	3	4	5
7	나는 이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1	2	3	4	5
8	나는 이 멍청한 사람을 경멸한다.	1	2	3	4	5
9	이 사람이 날 괴롭혔듯이, 나도 그를 괴롭히고 싶을 뿐이다.	1	2	3	4	5
10	차별만 피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	1	2	3	4	5
11	정말 머저리 같은 인간이 구만!	1	2	3	4	5
12	나는 복수하고 싶다.	1	2	3	4	5
13	이 인간을 실컷 두들겨 패주고 싶다.	1	2	3	4	5
14	이 사람 정말 짜증난다.	1	2	3	4	5
15	이 사람이 내게 한 것처럼 나도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다.	1	2	3	4	5
16	이빨이 부러져 나가도록 때려주고 싶다.	1	2	3	4	5
17	도대체 이 인간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1	2	3	4	5
18	나는 이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줄 거다.	1	2	3	4	5
19	그 사람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온갖 몹쓸 일들을 떠올린다.	1	2	3	4	5
20	이 사람이 무례하다고 생각된다.	1	2	3	4	5
21	나는 이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다.	1	2	3	4	5
22	나는 이 사람에게 귀싸대기를 올리고 싶다.	1	2	3	4	5
23	이 인간이 제발 입 좀 닥쳤으면 좋겠다.	1	2	3	4	5
24	누가 이 사람처럼 날 공격하면, 나 역시 되받아 공격할 것이다.	1	2	3	4	5
25	나는 이 사람에게 주먹을 한방 먹이고 싶다.	1	2	3	4	5
26	나는 지금 당장 뭔가를 깨부수고 싶다.	1	2	3	4	5
27	입 닥치고 꺼져버렸으면 좋겠다.	1	2	3	4	5
28	이 사람은 쓴맛을 좀 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1	2	3	4	5
29	내 일을 방해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혼나도 싸다.	1	2	3	4	5
30	이 사람이 날 화나게 만든다.	1	2	3	4	5

신체적 공격성: 1, 4, 7, 10, 13, 16, 19, 22, 25, 26, 29

타인비하: 2, 5, 8, 11, 14, 17, 20, 23, 27, 30

보복: 3, 6, 9, 12, 15, 18, 21, 24, 28